



발행 : 2010년 8월

한국 IPG 사무국 (JETRO 서울센터)

한국 IPG Information

목차

-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족 1~2p
- < 한국 IPG 활동 >
- ▶ 한국 IPG 의 2 대째 리더 3p
- ☆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3p
- ▶ 향후 활동 4~5p
- ▶ 이용바랍니다 5p
- ▶ 한국정부에 대한 지재관련 건의사항 6p
- < IP 를 알아 >
- ▶ 한국 IP 뉴스 7p
- ▶ 「유전자는 특허가 될까?」 8p

● 한국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공식 발족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 >

한국특허청에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대가 8 월에 도입되어 특허청 직원들로 구성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9 월 8 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찰대는 총 15 명으로, 서울·대전·부산 사무소에 5 명씩 배치되어 각 지역의 모방품(상표법위반·유명한 상표표식 혼동 행위) 단속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한국 IPG 에서는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 상표의 모방품이 발견되었을 시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특허청과의 협력관계를 맺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관련기사가 이어짐)

한국 IPG 사무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 지적재산팀
전화 / 02-3210-0195
e-mail / jetroiprseoul@gmail.com

榎本吉孝(에노모토·요시타카)
曹恩実(조은실)
趙乾東(조건동)
池崎麻理絵(이케자키·마리에)

한국 IPG 회원 등록

www.jetro-ipr.or.kr/admin/files/IPG_mem.pdf

사무국 소식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특히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무국의 「여름방학 숙제」는...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퍼즐을 만들었는데, 지재 단어(가로)와 한국에 관한 것(세로)과의 조합 퍼즐(!)을 만들어내느라 진땀을 흘린 여름이었습니다(3 페이지에 게재).
SJC 의 건의사항이기도 했던 한국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대가 드디어 도입되었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이 강화되도록 한국 IPG 와 경찰대와의 연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IPG·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한국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9월 8일)



없는 명품 대한민국
특별사법경찰



위조상품 없는
상표권 특



9월 8일에 한국특허청(대전청사)에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발대식이 열려, 사법경찰대가 본격적으로 단속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모방품·위조상품 단속은 지금까지 주로 경찰, 검찰이 해왔으며 특허청은 데드카피상품 혹은 유명상표의 도용상품에 대한 조사나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만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인해 특허청의 압수·수색·구속 등 실효성 있는 권한행사가 가능해져, 위조상품의 제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위조업자를 직접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대식에서 한국특허청의 이수원 특허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수원 특허청장의 인사말(요지)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여전히 낮는데, 그 이유는 위조상품의 유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수준을 낮추고 국제적으로는 통상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적발해도 시정권고나 행정절차밖에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었지만, 사법경찰권 부여로 인해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속업무 수행에 관해서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경찰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정한 단속 수행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경찰대가 되도록 지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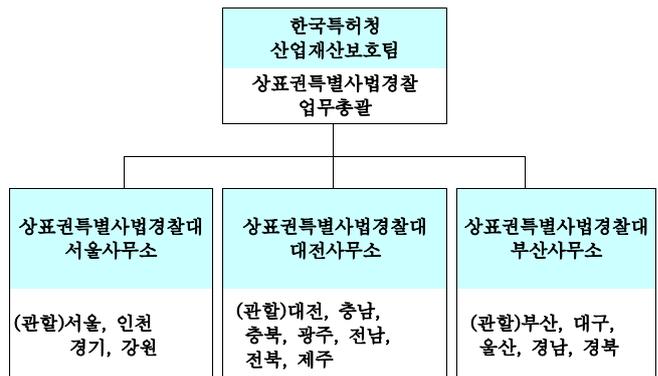
상표권 사법경찰대 발대식

일시 : 2010년 9월 8일(수) 11:00~11:50
 장소 : 한국특허청·대전청사 3동 204호 대회의실
 주최 : 특허청
 주요 참가자 :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채동욱 대전고등검찰청장
 전호석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현대모비스사장) 등



<특별사법경찰대 발대식 이벤트의 이모저모>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대전·부산 3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됩니다.



한국 IPG 의 활동

● 한국 IPG 의 새로운 리더 (취임사)

SJC 지적재산위원장으로 엔도 시게카츠(遠藤 重勝)씨(YKK 코리아·사장)가 선임되어 한국 IPG 의 리더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IPG 여러분께

7 월 중순에 한국에 부임한 YKK 코리아의 엔도라고 합니다. 전임자 사사키로부터 SJC 지적재산위원회 위원장직을 인계 받았습니다. 한국 IPG 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지재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예전 부임지 베트남에서 YKK 제품의 가짜상품 적발, 또 터키에서는 상표에 관한 계쟁 등에 관여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지재위원회에 관여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따라잡을 기세의 선진국인 한편 일부 시장에서는 가짜 핸드백이 범람하고 있어 지적재산 보호에 대한 사고방식은 뒤쳐져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앞으로 지적재산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의 일본기업 여러분께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YKK 코리아 엔도 시게카츠(遠藤 重勝)>

잠깐 휴식~☆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1		2	D		4
				3	
5			6		
		7 _C			
	8 _A				
9			B		



<가로열쇠>

- 1, 特許庁で審査を経て、商標〇〇がなされると商標権が発生する。
- 3, 文字を組み合わせて、図案化したデザイン文字、〇〇。商標によく用いられていますね。
- 5, 内国民待遇の原則、優先権制度、特許独立の原則を特色とする、産業財産権の国際保護の同盟に関する条約を〇〇条約といいます。
- 7, 特許協力条約(PCT)に基づいて、1つの出願書を提出することで PCT 加盟国の全ての国に出願したことになる出願制度。〇〇出願。
- 9, 特許権、著作権等の知的財産権を実施または使用する権利を認可することで、実施許諾や使用許諾のこと。

<세로열쇠>

- 2, 韓国の競馬の歴史。昔、この動物でしていたそうです。
- 4, 日本でも韓国でも、最近では若い人にも人気ようです。将棋ではなくて〇〇。
- 5, 町のいたる所にあるノレ〇〇。カラオケするならここですね。
- 6, 食堂に行くと、キムチとセットで出されることが多い〇〇〇〇。黄色いお漬物。
- 8, 韓国にはチョコグイ(〇〇焼き)のお店が多いですね。このチョコグを日本語で〇〇。

* ABCD 를 연결해 주세요.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 향후 활동

11 월 15 日 (월) 제 3 회 한국 IPG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가신청은 사무국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특허청과의 협력강화>, <일본본사와 한국지사와의 연계>를 테마로 한국특허청에서는 이수원 특허청장님이 참석해주실 예정이며, 일본에서는 본사·지적재산부를 대표해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대표단 5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개최장소·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IPG 회원 이외, SJC 회원 이외 분들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일시> 11 월 15 일(월) 오후 2 시 - 6 시 (6 시부터 교류회 개최)
- <장소> 미정 / 서울 시내 호텔 예정
- <테마>

제 1 부 : 한국특허청과 일본기업의 협력강화

한국특허청·이수원 특허청장
한국특허청·산업재산권보호팀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KIPRA)

제 2 부 : 일본본사와 한국지사와의 연계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대표단 5 명 참가예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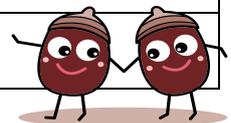
제 2 회 한일저작권포럼 개최안내

(일본 : 문화청,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 한국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10 월 5 일(화) 13:30~17:50 에 서울 COEX 컨벤션&전시회장 402 회의실에서 「인터넷상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와 관련된 한일연계」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JETRO 서울센터 지적재산팀 홈페이지 (<http://www.jetro-ipr.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사회 : 한양대학교 윤선희 교수)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40	개회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청)
세션 1 : 한일 저작권제도 및 그 운용과 관련된 최근의 동향	
13:40~14:20	한국측 강연 (국립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14:20~15:00	일본측 강연(니혼대학교수,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도히 카즈후미(土肥 一史))
15:00~15:30	질의응답
15:30~15:50	휴식
세션 2 :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의 신기술의 동향	
15:50~16:30	일본측 강연 (강연자 미정)
16:30~17:10	한국측 강연 (한국저작권위원회유통촉진팀 이정재 팀장)
17:10~17:40	질의응답
17:40~17:50	폐회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반사단법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세관직원대상 진위판정연수에 대해
12 월 2~3 일(서울세관), 9~10 일(인천공항세관), 16~17 일(광주본부세관)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세관직원대상 진위판정연수」에서는 세관단속직원에 대해 기업 담당자가 자사상품의 진위판정방법을 전수해줌으로써 세관에서의 모방품 단속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IPG 에서는 재한 일본계 기업이나 일본국내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진위판정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TIPA: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한 일본계기업 중 몇몇 회사들이 한국 IPG 사무국에 참가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기업(TIPA 비회원)의 연수기회 참가에 대해 8 월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한국 IPG 에서 안내해 드렸던 9 월 연수개최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 교섭 중인 과제(TIPA 의 문제점) >

이러한 세관직원 연수는 올해부터 한국 관세청이 TIPA 에 위탁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TIPA 는 회원제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기업에 한해(회원가입을 전제로 하는 기업을 포함) 세관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참가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TIPA 회비(정회원 : 연간 1,000 만 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각 기업은 세관 단속직원에 대해 모방품 분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해 세관에서의 모방품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 12 월 개최를 위해 >

세관에서는 이러한 연수를 앞으로 12 월(표기일정)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 IPG 에서는 일본계기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TIPA 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것(4 개사 정도)이 정해지면 한국 IPG 로부터 참가기업 모집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국내로부터의 참가도 가능합니다.

<경제산업성 보조사업>

※ 우측 사진은 세관직원 대상 진위판정연수 모습입니다.



● 이용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 ✚ 무료법률상담 <산업재산권제도 기반정비사업(일본특허청)>
- ✚ 공개상담
- ✚ 모방품에 관한 침해조사비용의 보조 <중소기업지적재산권보호대책사업(중소기업청)>

한국정부에 대한 지적관련 건의사항

SJC(서울재팬클럽)는 한국정부에 건의사항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을 총정리해서 8월 24일 한국정부(지식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총 30 항목, 그 중 지적재산분야는 총 19 항목(신규 6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초순에 한국정부와의 회의(지식경제부장관 출석예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구두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적재산분야 19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 건의 (지적재산분야 19 항목)

①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제도 정비 신규	② 한국에서의 일본 CD 판매에 관한 절차개선 신규
③ 한국대상 TV 프로그램 · 극장용영화라이선스 · 비즈니스의 문제점(일본프로그램의 지상파배정 퇴출, 아이디어도용)	④ 특허출원절차 개선
⑥ 외국어출원의 도입, PCT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⑤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⑦ 디자인 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요건 개선	⑧ 물품과 수상이기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
⑨ 상표출원의 선/후원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시기	⑩ 특허청 웹사이트에서의 의장 · 상표검색 신규
⑪ 상표의 유부판단과 관련된 심사기준 운용의 재검토 신규	⑫ 해외유명상표에 관한 판단기준의 적정화 신규
⑬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제한철폐	⑭ 특허권 등의 유효 · 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해 분쟁을 조기해결
⑮ 침해입증의 간소화	⑯ 통관보류조치의 강화
⑯ 간접침해규정의 확충	⑰ 위조품 진위판정교육의 기회 확대 신규
⑰ 위조품 진위판정교육의 기회 확대 신규	⑱ 모방품 규제 · 단속강화, 지적재산 마인드향상

한국의 문제점



< 불법복제 문제 >

- ① : 일본만화가 잡지로부터 스캔되고, TV 프로그램도 한국어 자막이 입혀져 인터넷상에 불법업로드 되고 있다. 법제도 정비와 벌칙강화가 요구된다.

< 모방품 단속 >

- ⑱ : 모방품 진위판정방법을 기업이 세관 등 단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제공)할 기회가 없다. 상품 진위판정을 위한 정보, 능력은 효과적인 단속의 전제가 되며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⑰ : 모방품 · 해적판이 범람. 통관보류조치를 특허권 · 의장권 등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으로 모방품이 수입되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할 때 감시강화가 요구된다.
- ⑰ : 한국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일본기업(한국 IPG)와 연계된 단속을 요망한다.

< 특허 · 의장 · 상표제도의 개선 >

- ④ : 특허청의 통지에 대응하는 기간을, 번역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연장해주기 바란다.
- ⑤ : 한국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적절한 보호를 요구한다.
- ⑥ : 특허출원(국제출원)에서 번역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채용되고 있지 않다.
- ⑦ : 상품전체 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추가로 부분적인 디자인 출원을 하거나 복수의 상품에 대해 등록하고 있던 상표를 하나로 묶어 등록하거나 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
- ⑧ : DVD 플레이어와 같이 상품자체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상품의 화면디자인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 ⑪ : 「A」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A+B」나 「A+B+C」등, 거의 전부 상표 등록할 수 없는 확실적인 심사다.
- ⑫ : 일본만화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한국 TV 드라마 타이틀이 한국에서 무단으로 상표 출원되고 있다.



한국 IP 뉴스

● ‘뉴발란스’ 가짜상품 정보제공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

디지털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 캐주얼웨어 대기업인 이랜드의 스포츠 브랜드인 「뉴발란스」 (미국 뉴발란스사로부터 라이선스) 가 브랜드 가치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가짜상품 제조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말까지 뉴발란스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 효과가 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한국중소기업청과 한국경찰청이 협력

한국에서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정보가 타기업 혹은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중소기업청과 한국경찰청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7월 20일에 체결했다고 전자신문이 전했다. 이 협약에 의해 한국경찰청은 한국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술유출관련 상담회 및 보안교육프로그램에 기술유출 수사전문경찰관을 파견해 기술보호 교육이나 사업자의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지원한다. 또한 5군데 지방청의 외사수사대에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첨단범죄에 대해 수사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중소기업청은 기술유출상담센터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전문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한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나 기술유출방지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에서의 상표권 갱신이 간단하게 (7월 28일부터 개정상표법이 시행)

한국에서의 상표권(기간 10년간)갱신에 있어 이전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 필요했으나 법개정에 따라 「갱신등록신청제도」로 간소화되었다. 기간 안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상표등록료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상표등록 출원 시에도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할 경우에는 「출원료」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출원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되게 되었다.

● 해외로의 특허사용료 지불이 5개월간 30억 달러를 넘다

한국의 올해 1~5월 해외로의 특허사용료 지불 총액은 31억 7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 21억 1000만 달러보다 50%정도 증가했다(7월 1일, 한국은행발표). 특허사용료 지불액의 증가는 한국내기업의 생산이 증가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의 특허기술에 대해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금액은 12억 9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7.7% 증가해 그 결과 특허사용료의 적자규모는 70.8% 증가한 18억 8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허사용료의 수지통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적자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 e러닝업계와 폰트업계의 저작권분쟁

한국에서 e러닝업계와 폰트업계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디지털 타임즈가 전하고 있다(7월 11일).

폰트업계 측 주장으로는 e러닝기업이 구입한 영구라이선스는 인쇄출판용 라이선스비용에 불과해 웹사이트의 배너 정도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해도 기업로고나 방송자막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을 매기고 있어, e러닝 동영상 강의 제작은 라이선스 범위 밖이라고 하고 있다. 폰트업계에 따라 조건에 차이는 있지만 폰트 1개·1과정으로 간주되는 단위로 150만 원을 요구한 예도 있어 e러닝업계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자세한 기사, 그 밖의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 지적재산 뉴스’를 참조 바랍니다.

URL : www.jetro-ipr.or.kr/news/news02.asp

유전자는 특허가 될까?

FILE No : 23

한국에서의 유전자특허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수는 2 만을 넘는다고 한다. 그 중 하나인 「BRCA 유전자」에 대해 미국에서 7 건의 특허권이 1997 년부터 연달아 생물제약회사인 Myriad Genetics Laboratories 에 주어졌다. 이 회사는 BRCA 유전자가 암 억제유전자라는 것,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이 회사는 BRCA 유전자 진단비즈니스를 통해 1 회당 4,000 달러 가까운 비용으로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유전자정보는 전 인류의 재산이지 않은가? 유전자 진단의 상업적 독점에 대한 저항이 거세져, 작년 5 월에는 미국 자유인권협회가 의료관계조직이나 암환자 등과 함께 이 회사의 특허를 무효로 하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앞서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왔습니다. 사람이 창조한 것이라면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에 대해서도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즉 특허를 줌으로써 연구개발(R&D)이 촉진되고 의료나 의약이 진보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에 대해 처음으로 특허가 주어진 것은 80 년에 미국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해양에서 기름을 분해하도록 설계된 유전자 조작 미생물」의 발명입니다. 이에 관해 법원은 「이 미생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품이며 일반 화학물질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87 년에 미국특허청은 동물을 포함한 다세포생명체(인간을 제외)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공포하고, 88 년에는 포유동물에 대한 특허가 처음으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미생물 외에 형질전환동식물(유전자를 도입해 형질이 변화된 동물이나 식물), SNP 나 EST(유전자 등의 특수한 부분), 인간유전자, 인간배성간세포(인간 ES 세포)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 월에 미리어드 · 제네틱스의 BRCA 유전자 특허소송에 대해 뉴욕지방법원은 「유전자와 같은 자연적 산물을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BRCA 유전자에 관한 7 건의 특허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6 월에 항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전자특허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발견해 분리 · 정제하고 그 구조와 기능을 규명한다면 신규화학물질로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도 그것을 분리해 배양과 기능을 규명하면 신규유전자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 그리고 3 국 특허청(미국, 유럽,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유전자	○ 특허가능			
DNA단편	특정질병 진단용 등 구체적인 유용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특허가능			
단백질	○ 특허가능			
미생물	○ 특허가능			
동물 식물	○ 특허가능			○ 특허가능 × 동물은 불가
인간, 신체 일부	X 특허불가			
인간 배성간세포	○ 특허가능	특허불가?	특허불가?	특허불가?
수술, 진단, 치료방법	○ 특허가능	특허불가능 사람불가	특허불가능 사람불가	특허불가능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는 거의 같은, 그리고 미국, 유럽과는 일부분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표 1). 또한 의사가 인간에 대해 실시하는 의료행위(수술, 치료, 진단법)에 대해 독점권(특허)을 인정해줄 것인지의 여부도 각국의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한국특허청은 2008 년 1 월에 심사지침을 개정해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새롭게 특허의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다만 「임상적 판단(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별하는 정신적 활동)」이나 「인체에 직접적이며 일시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단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한국에서의 특허전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설자>
리 · 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 안상오 변리사
67년생. 94년부터 리 · 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에서 화학, 바이오, 의약 관련업무를 담당.
04년 변리사시험 합격.
(감수: JETRO서울센터 에노모토 요시타카(榎本吉孝))

가로세로 맞추기 정답: 칸코크 (한국)

<<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

